



2022년 5월 15일
2대리구 진량성당 | 그림 -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부활 제5주일 2022. 05. 15. (다해) 제2321호

제1독서 사도 14,21-27 **화답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제2독서** 묵시 21,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3,31-33-34-35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명령으로서의 사랑!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김성근 요셉 신부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수난 전날 저녁,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유다의 가슴 아픈 배반을 알린 후,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묵상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 배신, 하지만 그 가운데 인간에 대한 연민과 용서! 이 모든 것이 교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나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사랑하여라.”라는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2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절박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랑하기에, 용서하기에, 또 포용하기에 너무 많은 실패의 경험과 상처들 때문일까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말하기가 쉽지 않음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타협과 심리학적인 탈출구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신자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요한 13,33)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홀로 남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요약하여 ‘이것만은 꼭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좋겠네,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본질이며 우리가 놓칠 수 없이 끝까지 손에 쥐고 몸부림쳐야 할 절체 절명의 명령인 것입니다.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생각하고 참 많이 노력해 왔지만, ‘용서하기’가, ‘내어주기’가,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것,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기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좀 억척같습니다만, 우리는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신자 여러분,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분의 마지막 ‘명령’임을 잊지 맙시다. **필요**



환경파괴의 종합선물세트

교구 문화홍보국

지난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펼쳐진 전쟁이 어느덧 3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기전을 예상했던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을 발생시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는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심각한 환경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환경파괴의 종합선물세트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미사일이나 폭탄 등의 무기 사용, 항공기나 선박운용, 파괴 등에 의한 화재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시설이 파괴되면서 대량의 잔해물이 폐기물로 쌓일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토양과 수질오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인 충돌 과정에서 종의 개체가 줄어드는 일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 생태계에 위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에는 최강의 폭격기였던 B-29가 네이팜탄을 실은 채 무차별 폭격을 가해 불바다를 만들었고, 월남전에서는 최악의 독성물질인 고엽제가 살포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그로 인해 오랜 시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특히 환경파괴의 처참함을 그대로 보여준 걸프전에서는 650여 개의 유전이 불에 타 평균기온이 섭씨 10도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 바다로 흘러간 원유는 토

양과 바다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회복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 환경도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공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십 년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변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칙들을 잘못 이해하여 종종 자연을 착취하거나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횡포, 또는 전쟁과 불의와 폭력을 정당화하여 왔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지혜의 보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200항)

“모든 전쟁은 그 이전보다 훨씬 나쁜 세상을 남겨놓습니다.” (『모든 형제들』, 261항)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심각한 환경 테러이며 공동의 집 지구에서 없어져야 할 가장 큰 위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평화**

평화에 대한 교황의 의문

2022년 5월 1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정숙

“저는 (...) 진정으로 평화를 찾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날로 커져가는 의구심을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교황의 이번 발언은 점점 더 파괴적인 형태로 치닫는 분쟁 가운데 군비 증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는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에게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언어적 위협을 고조하며, 적을 완전히 악마로 취급하고, 핵 공격 가능성을 시물레이션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항하며 자행하는 침략 전쟁의 장기화, 재무장 경쟁, 국제 차원의 강력한 이니셔티브의 부재 등 이 모든 것이 무력 충돌, 과거로의 회귀,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구시대적이라고 입을 모았던 전쟁의 오랜 “패턴”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점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황은 “우리는 인류의 끔찍한 퇴보를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는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찾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지속적인 군사력 확대와 언어적 긴장 고조를 피할 의지가 있는지, 무기를 내려놓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는 분명 어렵다. 세계 지도자들의 대답은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한다.”이다. 그러나 그 말속에 담긴 의지는 창의적 결단과 진심으로 협상하려는 의지로 탈바꿈하지



부활 제3주일 부활 삼종기도를 위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Vatican Media)

못했다.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지만 교황이 “전쟁의 패턴”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교황청 국무원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새로운 헬싱키 회담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일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국제기구와 국제기구의 창설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스스로 국제기구의 대표로 느낄 수 있는 ‘공동의 집’이 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억지 이론과 군사력에 기반하지 않고 새로운 국제 관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력전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황이 “폭력의 논리, 무력의 악순환에 굴복하지 말라.”라며, 대화와 평화의 길에 나서자고 호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1년

나바위 성당을 축성하다

9월 14일 목요일

강론은 아침저녁으로 한다. 모든 시간은 기록부와 여러 가지 서류를 살피고, 신부와 이야기함으로써 선교사와 본당을 아는 데 주로 사용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시작했고, 또 앞으로 계속될 순시의 목적이다. 베르모렐 신부는 오늘 오후에 나바위[羅岩]로 떠났다.

9월 15일 금요일

선교사들로부터 적어도 특별한 재능이 없는 한 규정대로 문서를 기대하기란 정말 어렵다. 그래서 교구는 그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모든 기록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9월 16일 토요일

되재에서 나바위까지 갔다. 베르몽 신부가 동행했다. 내가 되재에 있는 동안 그치지 않았던 비가 다행히도 멎었다. 첫 번째 방문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교우들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9월 17일 일요일

오늘 성당을 축성할 예정이었지만 비가 또 내려 할 수 없었다.

9월 18일 월요일

예수 성심을 주보로 나바위성당을 강복하고, 이어 종을 강복했다. 베르모렐, 베르몽, 이 발도로메오[李尙華] 신부들이 함께 참석했다. 영성체자가 많았다.

대구 : 개신교도들이 큰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가톨릭 교구가 설정된 데 대응하기 위하여, 이 도시를 개신교 선교의 활발한 중심지로 만들 생각이다. 아마 개신교의 새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 안 주교의 첫 사목 방문(1911. 9. 11.)

9월 19일 화요일

나바위 방문의 마지막 날이다. 부주교의 본당이었으므로 조사가 보다 완전하고 보다 전반적이었다.

9월 20일 수요일

나바위에서 안대동(安大洞)까지 갔는데, 길이 진흙투성이였다.

9월 21일 목요일

오늘 방문 중 독특한 날이었다. 마당에서 견진성사를 주었다(59명). 아주 바쁜 하루였다. 보두네(Baudounet, 尹沙勿) 신부가 저녁에 도착했다.

58. 사목적 전망 ③

혼인 준비 기간은 하객 초대, 예복과 피로연 준비, 그리고 금전뿐만 아니라 힘과 기쁨을 고갈시키는 다른 많은 소소한 일들의 준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주의와 허례허식의 사회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은총으로 강화되고 거룩하게 되어 여러분을 결합시켜 주는 사랑입니다. 약혼한 이들이 모두 세례 받은 이들을 경우에, 혼인 합의로 표현되는 그 커다란 약속과 혼인을 완결하는 두 몸의 결합은 하느님의 아드님 사랑의 표징입니다. 이는 미래를 포함한 전체성, 곧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혼인 준비를 도와주는 이들은 그들이 매우 유익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 212-216항)

‘말씀의 해 안내지’ 구약성경 이벤트

참여방법

1. 그동안 열심히 써주신 말씀의 해 안내지 구약성경(1호~66호 전체)을 본당 신부님께 보여주시고, 66호(2022년 4월 10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성경읽기 부분 상단에 본당 신부님의 확인(도장 또는 사인)을 받습니다.
2. 신부님의 확인이 잘 보이도록 ‘말씀의 해 안내지 66호 앞면’을 사진으로 한 장만 찍은 후, 교구 사목국 카페(<https://cafe.daum.net/dgsamok>) ‘구약성경 이벤트 글’ 댓글에 사진과 개인정보를 첨부해주세요.

참여기간 2022년 5월 22일(주일)까지

※ 말씀의 해 안내지(70호) 정답 확인과 이벤트 참여는 사목국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QR 코드를 검색해주세요.



주교좌 범어대성당 봉헌 6주년 기념

이탈리안 바로크 콘서트

전야 음악회

5.21(토) pm 5:00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

지휘 | 요한 로즈 Johan Rooze & 김연지

연주 | 주교좌 범어대성당 아마레 + 보누스 성가대

솔로리스트들과 오르가니스트들

가톨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악 앙상블과 관악 앙상블

문의 | 053-790-1300, www.besd.kr 전석초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5월 16일(월) 11:0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19일(목) 10:00 평화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5월 16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21일(토) 11:00 월성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16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5월 21일(토) 11:00 성모당

수도회 성소 | 피정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5.21(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개별만남 및 성소 상담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예수성심전교수녀회·수도회 기도 모임

일시: 5.20(금) 20:00

장소: ZOOM 온라인 모임

대상: 40세 미만 미혼 남녀

문의: (010)3241-3107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5.17(화)~18(수)

시니어: 5.24(화)~5.25(수)

문의: (054)382-0091

성령강림대축일 대피정

일시: 6.4(토) 10:00~17:00

장소: 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피정의집)

강사: 이영숙 수녀, 윤원진 신부

미사: 총대리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

문의: (010)9045-0191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 치유 피정(무료)

일시: 6.4(토) 15:00~6.5(일) 15:00

장소: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강사: 맹진학 라파엘 신부, 김완식 요셉

버스운행: 초치원역 앞 신한은행, 14:00

문의: (010)4400-1344 / (043)213-9103

교구 외 | 기타 알림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피정

날짜: 5.22~24 / 5.26~28 / 5.30~6.1

6.4~6 / 6.13~15 / 7.3~5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

성지순례: 5.28~31 / 6.4~7

자연순례: 5.23~25 / 6.20~22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 희랍어)

기간: 7월부터 1년 (3개월 30만원: zoom)

시간: 구약(목) / 신약(수) 19:30~21:30

문의: 김성태 신부 OFM,

(010)4598-6912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느리게 살기 체험해 보기

(천천히 운전하기, 천천히 먹기, 천천히 걸어보기, 천천히 소비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코리아알트만
39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www.theopen-daegu.co.kr **관절! 출추개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릎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5번 출구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SINCE 1975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익두(아오스당),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모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원장 이 동 구 (마티아)

개원 37년

달성 피부과

●아토피 ●여드름 ●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 ●선크림 ●면역강화 수액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 김민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 중 원 (소시오)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지 서재신(베드로) · 장주현(비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파크골프

국산채, 수입산, 혼마4스타 초보자 무료레슨

대안2층 2호실 **일일메트**충남 **한일의료기** **소형가전**
소금염좌욕기 게르마늄옥트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차관 1층 239호

교구 | 대구구 알림

'찬미받으소서' 주간 생태환경위원회 미사

일시: 5.24(화) 15:00~16:00

장소: 성모당

집전: 총대리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

대구대교구 순교자 현양 기행문 공모전

주제: 친교를 통하여 복음의 기쁨을
살아간 이들

방법: 교구 내 성지순례 후 기행문 작성

마감: 11.30(수) / 교구 홈페이지 참조

문의: 월간 <빛>, 255-8405

5월 예비신학교 모임

일시: 5.22(일) 14:00

장소: 남산동 신학교

대상: 고3, 대학, 일반

세계가정대회 주제가 합창·중창 대회
(비대면)

신청: 6.1(수)~6.10(금)

대상: 신자 누구나 (가족 또는 단체단위)

문의: 가정복음화국, 250-3077

칠곡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개인 프로필 제출: Fax. 326-1501

문의: 본당 사무실, 323-1501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지수(레아)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연필초상화,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서양화, 오카리나, 칼림바, 발성법,
난타, 고전무용, 장구, 사군자문인화,
제대꽃꽂이, 성가반주오르간, 이콘화,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원서접수: 5.17(화)~25(수)

접수처: 학교법인 선목학원 법인사무국

자세한 사항은 선목학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dgsunmok.or.kr>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외과(유방·갑상선)

문의: 320-2120 / (010)7372-0076

대구가톨릭학술원 최덕민 장학사 초청특강

일시: 5.19(목) 17:30 (미사시작)

장소: 교구 꾸르실로 교육관 4층 대성당

주제: 학교폭력의 현실과 학생 인권

강사: 대구교육청 최덕민 장학사/강의무료

문의: 사무총장, (010)7190-1258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5.16(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509-9748

가톨릭미용인회 월모임

일시: 5.23(월) 20:00

장소: 교구청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대상: 가톨릭 신자 미용인

문의: (010)8281-4040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463-5191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향초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일자: 5.21(토)

문의: (010)5639-8071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053) 320-2000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 경 임 (아네스)

힐스피부과
색소·여드름·리프팅·일러저·사마귀·피부종양
원 장 박 상 훈 (요셉)
☎ (053) 431-3377
대구 2, 3호선 칠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달병원 3층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원름,투름 용달이사
한억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요 안 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